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육계 계열화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계열화 사업의 새로운 지표마련 기대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수산물부 와 농협에서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빠르면 5월부터 '육계계열화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을 과제명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는 농협중앙회가 사업주최가 되어 공고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발한 후 진행이 될 예정인데, 1억원의 예산으로 약 6개의 기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내용은 국내 육계산업 및 계열화 사업의 현황(닭고기 유통실태 등),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 계열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등 국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구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계열화업계에서 축산법 개정(가축계열화·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 신설)과 관련하여 '가축계열화업'의 용어신설은 축산업자 및 가축계열화업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고 축산법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물부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본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는 지난 4월부터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안을 놓고 농가측과 계열사측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농가와 계열사 간의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육계계열화사업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 국내에 정착되면서 농가와 계열사 간에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점검(분석)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에 대한 평가는 물론 농가사육비율 확대에 따른 시장구도, 공영도계장 및 공판장 설치 필요성 등도 평가가 이루어져 육계산업에 있어서 계열화 사업의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순항 거출을 위한 대농가 홍보에 진력을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이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산란노계 1수당 100원씩 자조금을 거출기로 결정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무국 설치 및 직원채용이 이루어지는 5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개최된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호 산골농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자조금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조금사업은 양계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타 축종보다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답보상태를 유지해 오다 노계도계장에서 거출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급진전 되었다.

양계자조금은 지난 1992년 처음 분회주관으로 자체조성금과 정부보조금을 합해 총 129,946천원으로 시작되었다. 타축종에서도 자조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분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서 의무자조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에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자조금사업이 시작된지 꼭 10년만인 2002년 5월 13일자로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자조금사업 추진에 활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산란계는 의무자조금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나 최종산물인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게 되면서 사료, 병아리, 도계장 등 거출처를 찾지 못해 전전공궁 하였다.

결국 자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계장으로부터의 거출만이 대안으로 다가왔고, 노계도계장에서의 협조를 끌어내면서 역사적인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자조금이 거출될 경우 1년에 처리되는 노계가 약 2,300만수정도 되므로 100원씩 거출한다면 최대 23억원 정도의 자조금이 거출되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합해 약 46억원으로 자조금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 6월부터 거출금을 징수한다고 할 경우 최대 7개월간 거출할 수 있으므로 약 26억(정부 보조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농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거출비율을 높여야만 소기의 계획된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설치도 현재의 자조금법에 정해진 운용비율이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육계자조금과 함께 양계협회 사무실을 활용 하자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거출금이 높아져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양계협회 사무실에 사무국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타 축종에 비해 예산규모가 낮지만 보다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산란계 산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캐슬병(ND) 근절을 위한 노력 백신효능, 접종방법 등 종합진단 필요

정부에서는 법정 제1종 전염병인 ND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5개년간 청정화 계획을 발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부화장과 양계농장에 정부차원에서 백신을 공급하면서 근절의지를 보였으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피해사례가 보고되는 등 ND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ND 예방백신을 부화장 7억2천만수분과 양계농장에 6억5천만수분을 전액 지원하면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가를 중심으로 ND백신의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ND백신은 생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독백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관계로 관급백신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 모 부화장에서 분양된 육계 병아리들이 농가에 보급 된 후 농가에 피해를 가져오면서 ND백신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에 의하면 부화장에서의 잘못된 접종방법 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ND백신 지원단가가 4원에서 3원으로 하락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에 수입백신을 사용하던 지자체에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국내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이 기존의 제품을 원하면 지방비를 보태서라도 기존방식대로 관급백신을 교체하지 않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제조사의 백신사용과 관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접종방법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백신효능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고, 국가 검정을 통해 현재 보급되고 있는 국내·외 백신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어 백신주를 각 백신회사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에 보급되는 백신주는 안전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에서 제조과정상 문제가 노출되어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ND백신에 대한 접종방법 및 효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농가들의 의견대로 지원단가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지원 금액을 충분히 늘려농가가 원하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백신접종방법의 문제라면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화장 및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실태,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ND 방역대책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양계**